【연구논문】

미국의 살인율에 관한 논쟁

배영수
(서울대)

I. 쟁점과 배경

미국의 살인율은 지난 한 세대 동안에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살인율은 대개 한 해 동안에 인구 10만 명 가운데서 살해되는 사람의 숫자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어떤 국가가 평화와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그 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제외하고, 그 국가 안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법률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사적(私的) 차원의 죽음에 한해 산정된다. 미국의 경우, 그것은 1991년 9.8에서 2017년 4.9로 줄어들었으니, 한 세대 사이에 정확하게 절반으로 격감한 셈이다. 그렇지만 이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치 3.6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다. 더욱이, 캐나다 1.4, 프랑스 0.6, 독일 0.4, 이탈리아 0.8, 일본 0.3, 영국 0.2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1)]

이런 사정은 세계적 맥락에 비춰보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유엔마약

---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Better Life Index: Safety,”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018년 9월 15일 접속).

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의 평균 살인율은 6.2이지만, 지역별로는 그 비율이 1에 가까운 서부유럽에서 24를 넘는 중앙아메리카까지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미국은 살인율이 낮은 지역에도, 또 높은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그 비율이 3 미만으로서 세계 인구 가운데 29억 명이 사는 평온한 지역이나 그 비율이 20 이상으로서 인구 7억 5천 만 명이 사는 위험한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 대신, 중간 지역--살인율이 3 이상 20 미만이며 34억 명의 인구가 사는 지역--에 속한다.[2)]

이 측면에서 미국의 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오늘날 학계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살인율은 어떤 사회가 얼마나 폭력에 좌우되는지 가늠하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살인은 흔히 강도나 강간, 또는 폭행처럼 사적 폭력을 수반하는 다른 강력범죄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 그에 관해서는 경찰 조사와 재판 기록을 비롯해 다른 어떤 범죄보다 많은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만큼, 관심을 지닌 학자들이 접근하는 데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학자들은 살인율을 연구함으로써 살인을 넘어 사적 폭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이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감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인다. 덕분에 상당히 많은 것이 밝혀져 있다.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듯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은 거의 모두 남성이고, 10대와 20대 등,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흑인과 히스패닉--정확하게 말하자면 비백인계 히스패닉--인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영화나 TV 드라마를 비롯해 폭력을 묘사하는 매체에서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총기에 비교적 쉽게

---

2)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s and Crime, *Global Study on Homicide: Trends /Contexts/Data*, *2013*, http://www.unodc.org/documents/gsh/pdfs/2014_GLOBAL_HOMICIDE_BOOK_web.pdf (2018년 9월 15일 접속).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를 살인으로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마약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격리시키는 등, 사법 당국이 취하는 조치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3)]

그렇지만 미국의 살인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식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1880년대에 이르러 어느 언론인의 노력 덕분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으며,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뒤에는 어떤 사회과학자의 연구 덕분에 학술적 주제로 부각되기도 했다.[4)] 그래도 그것은 20세기 중엽까지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살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정확하게 얼마나 높은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또한 문제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야 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살인은 20세기 중엽까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학계의 관심 밖에 있었다. 물론, 역사학자들이 살인을 전적으로 외면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미국을 휩쓸었던

---

3) 대표적인 업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Franklin E. Zimring and Gordon Hawkins, *Crime Is Not the Problem: Lethal Violenc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Becky Petit and Bruce Western, "Mass Imprisonment and the Life Course: Race and Class Inequality in US Incarce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2 (April 2004): 151-69; Franklin E. Zimring, *The Great American Crime Decl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 Horace V. Redfield, *Homicide, North and South: Being a Comparative View of Crime against the Person in Several Parts of the United States* (1880;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0); H. C. Brearley, *Homicide in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2).

인종폭동 이후에, 일부 학자들은 전쟁과 내전을 넘어 인종이나 민족, 또는 계급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서도 연구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17세기 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두 150만 내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미국의 역사가 끔찍한 폭력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그런 폭력이 일어난 원인과 그것이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역사학자들은 그처럼 전쟁과 내전, 그리고 폭동을 비롯한 정치적·사회적 차원의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살인이나 강도, 폭행이나 강간 같은 개인적 차원의 폭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5]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역사학계는 20세기 중엽부터 정치사와 경제사에 집중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사회사와 문화사를 탐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몇몇 예외를 차치한다면 사적 폭력으로까지 시야를 넓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던 사회과학자들은 경험적 연구를 넘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들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근대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몇몇 학자들은 페르디난트 퇴니스(Ferdinand Tönnies)와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이론을 원용해 그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 근대화는 공동체의 해체와 도시화의 진전을 수반하며 그에 따르는 정신적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질서를 재편하며 폭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대개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가 말한 "문명화 과정"(civilizing process)에 주목했다. 이것은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대략 500년에 걸쳐 유럽에서 근대문명이 발전하는 복잡한 과정인데, 그 핵심에는 폭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근대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근대국가는 국제관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중세 이래 무력을 장악했던 귀족을 억누르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경제

---

5) Ira M. Leonard and Christopher C. Leonard, "The Historiography of American Violence," *Homicide Studies* 7.2 (May 2003): 99-153.

발전을 촉진하며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사회구조를 개편하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은 농민의 가정은 물론이요 군주의 궁정에서도 용납되었던 조야한 행동방식을 버리고 세련된 예절과 관습을 따르는 근대문화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폭력을 야만적 행위로 폄하하면서 공격적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고 세련된 태도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방식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6] 적잖은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엘리아스의 이론을 원용해 살인을 비롯한 사적 폭력의 역사적 추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사회과학자들은 198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의 높은 살인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학자 테드 로버트 거(Ted Robert Gurr)는 1981년에 발표한 논문「폭력 범죄의 역사적 경향」에서 이후의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살인사건에 관한 기록이 풍부한 영국의 경우에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살인율이 10분의 1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영국과 같은 하락 경향이 보이지만, 19세기 중엽부터 이민 집단을 중심으로 상승 경향도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서양국가에서도 살인율이 하락하는 장기적 경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것을 엘리아스가 말하는 "문명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7] 이 논문은 곧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적 폭력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주제를 다루는 학자들은 흔히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 요점에 대해 부연하거나 비판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

6) Ferdinand Tönnies, *Community and Society*, trans. Charles P. Loomis (New York: Harper & Row, 1963); Georg Simmel,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trans. Kurt H. Wolff (New York: Free Press, 1955), 409-24;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문명화 과정』, 박미애 역 (한길사, 1996).

7) Ted Robert Gurr, "Historical Trends in Violent Crime: A Critical Review of the Evidence," *Crime and Justice* 3 (1981): 295-353.

거의 1981년도 논문을 계기로, 1980년대 초에는 역사학계에서도 사적 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사 분야에서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그런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초에 이르면 지도적인 학자 로렌스 스토운(Lawrence Stone)이 흥미로운 평론을 발표하면서 폭력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 요점은 한마디로 줄이면 영국에서는 살인율이 중세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몇 차례 등락을 거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그러니까 거가 제시한 견해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토운은 논문의 말미에서 그 함의를 이렇게 정리했다.

> 그렇지만 이미 분명해진 것은 중세 영국사회가 근대 초기의 영국사회에 비해 두 배 더 폭력 지향적이었고, 근대 초기 영국사회가 현대 영국사회에 비해 적어도 다섯 배 더 폭력 지향적이었다는 점이다. 분명해진 것은 또한 이 근대 이전의 폭력이 대체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명백한 것은 중세든 근대든 간에, 옛날 옛적에 촌락에서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관념이 신화라는 점이다. 그것이 20세기 말에 갑자기 부활한 이유는 역사적 현실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를 동경하며 향수병에 빠져 있는 낭만파나 전통적 소농의 소멸에 대해 개탄하는 학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는 그것과 합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을 벌일 때면 선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어도 영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훨씬 적게 드러내기도 한다.[8)]

과거에 대한 낭만적 해석을 경계하는 스토운의 견해는 한 세대 동안에

---

8) Lawrence Stone, "Interpersonal Violence in English Society, 1300-1980," *Past and Present* 101 (November 1983): 22-33, 32-33.

폭력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졌다.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현대 내지 현재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의 연구 성과에서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으려 한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몇 학자들은 지역이나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데 흥미를 보인다. 이들이 특히 흥미롭게 여긴 것은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이른바 자연상태에서 얼마나 평화를 누리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갈등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연상태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홉스가 국가론을 구상하며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얼마 뒤에 로크가 정부론을 저술하면서 그것을 홉스와 다른 뜻으로 사용함에 따라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루소를 비롯한 계몽사상가들은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정치사상의 기본 전제로 삼았으나, 홉스의 견해를 제대로 논박하지 않은 채 로크의 해석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목가적 전원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9] 그렇게 해서 홉스가 제시한 개념 이외에 로크에서 루소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개념이 면면한 전통으로 자리 잡아 20세기까지 계승되었고, 스토운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를 낭만화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사실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지식인들은 흔히 근대 이후에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전쟁이 점점 더 야만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개탄하는 반면에 원시시대에는 전쟁이 가끔 치르는 의례적인 행위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폭력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그런 관념을 깨뜨렸다. 우선, 로렌스 키일리(Lawrence H. Keeley)와 스티븐 리

---

9) Thomas Hobbes, *Leviathan*, ed. C. B. Macpherson (1651; London: Penguin Books, 1981);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eter Laslett (16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Montesquieu, *The Spirit of the Laws*, trans. and ed. Anne Cohler (17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trans. Maurice Cranston (1762; London: Penguin Books, 1968).

블랑크(Steven A. LeBlanc), 그리고 아자르 갓트(Azar Gat)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자연상태의 개념을 고고학적 증거와 인류학적 조사, 그리고 역사적 자료에 비춰보며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기 이전에 살았던 원시인은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한 미개인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전쟁을 자주 벌였고, 흔히 정면 대결보다 매복이나 기습을 택했으며, 승리하는 경우에는 대개 남자를 모두 죽이고--때로는 여자와 아동까지 모두 죽이고--전리품을 챙겼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바꿔 말하면, 자연상태는 홉스가 말한 바와 같이 만성적 전쟁과 빈번하고 참혹한 폭력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다.[10] 더욱이, 근래에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인류가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에서 점차 벗어나 왔다고 지적했다. 오늘날에는 분명히 전쟁이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지만, 인류가 전쟁을 비롯한 폭력의 사용을 억제하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폭력에 희생되는 인명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11]

이런 인식의 변화 속에서,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미국사 전문가들도 늘어났다. 물론, 미국사 분야에서도 몇몇 학자들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연구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지만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뚜렷하게 늘어났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연구는 흔히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대도시를 무대로 삼거나 서부나 남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또 여성사 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에, 오랫동안 사생활로 간주되어 공적 담론에

---

10) Lawrence H. Keeley, *War before Civi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teven A. LeBlanc, *Constant Battles: The Myth of the Peaceful, Noble Savage*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3); Azar Gat,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1) Steven Pinker,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The Decline of Violence in History and Its Causes* (New York: Allen Lane, 2011).

서 배제되었던 가정폭력을 탐구하고 논의하는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12] 결국 1990년대 말에는, 그런 연구를 종합하며 전국적 차원에서 살인의 역사를 개관하는 저술이 등장했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탐구하던 로저 레인(Roger Lane)이 1997년 『미국의 살인』이라는 단행본 연구서를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미국의 살인율이 일찍부터 높았다는 것, 식민지 개척기부터 백인 사이에서는 살인율이 낮았던 반면에 원주민과 흑인, 그리고 이민 사이에서 높았다는 것, 또 그 이유로는 만연한 총기와 무법한 변경지대 이외에 인종주의와 노예제의 유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13]

게다가 21세기 초에는 유럽의 살인율에서 보이는 역사적 추이가 상세하게 밝혀졌다. 영국의 사회학자 매뉴얼 아이즈너(Manuel Eisner)는 200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며 테드 로버트 거가 제시한 견해를 보완했다. 그에 따르면,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탈리아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또 영국에서 독일까지,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살인율이 적어도 10분의 1 이상 하락했다. 그런 추이는 16세기에

---

12) 대표적 업적으로 다음 연구를 들 수 있다. Richard Maxwell Brown, *Strain of Violence: Historical Studies of American Violence and Vigilant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Roger Lane, *Roots of Violence in Black Philadelphia, 1860-19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Linda Gordon, *Heroes of Their Own Lives: The Politics and History of Family Violence: Boston, 1880-1960* (New York: Viking Press, 1988); Elizabeth Pleck, *Domestic Tyranny: The Making of American Social Policy against Family Violence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1987;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4); David Peterson de Mar, *What Violence I Have Seen: A History of Violence against Wiv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13) Roger Lane, *Murder in America: A History*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97); idem, "Murder in America: A Historian's Perspective," *Crime and Justice* 25 (1999): 191-224. 레인의 저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 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 서평을 보라. David Courtwright, *Journal of Southern History* 64.3 (August 1998): 572-74; Allen Steinberg,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1 (February 1999): 178-79.

반전하는 양상을 띠었지만, 대체로 지속적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가 나타났다. 남부와 동부에서 하락세가 둔화된 반면에, 근대화가 진행되던 서부에서는 하락세가 더욱 빨라졌다. 게다가 서부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분명한 편차가 나타났다. 중세 말에는 신분이나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회집단이 고르게 살인을 비롯한 폭력을 저질렀으나, 19세기부터는 상류층이 먼저 폭력을 포기하고 중산층이 그것을 뒤따른 반면에 하류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끝으로, 아이즈너는 그런 역사적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엘리아스가 말하는 "문명화 과정" 이론을 원용하면서도, 근대국가의 폭력 독점과 사회 통제 이외에 전통적 명예심과 도덕적 개인주의 같은 문화적 요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4)]

따라서 21세기 초에 이르면, 살인을 비롯한 폭력의 역사에서 미국이 유럽과 다른 경로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유럽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바꿔 말하면, 사적 폭력의 역사에서 미국이 지니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II. 제1차 논쟁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근래에 역사학자들이 미국에서 살인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듯하다. 한마디로 줄여 근대문명의 발전이 파괴적 폐단보다 오히려 폭력의 쇠퇴를 가져왔다면, 그것이 가장 발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높은 살인율에서 드러나듯이 폭력이 그리 크게 쇠퇴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폭력의 역

14) Manuel Eisner, "Long-Term Historical Trends in Violent Crime," *Crime and Justice* 30 (2003): 83-142.

사에 대한 오해의 산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미국 예외론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이 의문이 근래에 미국의 살인율을 놓고 벌어진 논쟁의 핵심에 있었다. 논쟁은 2006년 2월『미국역사학보』에 게재된 지상 토론회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서는 오랫동안 도시를 중심으로 살인의 역사를 탐구한 바 있는 에릭 몽코넨(Eric Monkkonen)이 발제를 맡았다. 그는「살인--미국이라는 예외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 아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서, 살인율의 측면에서 미국이 지니는 특징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서부유럽에서는 살인율이 중세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추세가 근대 초기를 넘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19세기와 20세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래서 서구의 살인율은 중세 말에 30을 웃돌았으나, 18세기 말까지 5 아래로 떨어졌고,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2.1로 더 떨어졌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살인율이 식민지 개척기에도 서구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뉴욕시에서 나타나듯이 19세기 중엽까지 5로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오히려 10으로 올라갔다. 바꿔 말해, 서구와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몽코넨은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채용되는 이론을 미국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의 높은 살인율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측면으로 관심을 돌린다. 그는 먼저 만연한 총기에 주목하는 설명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살인율은 총기가 사용된 경우를 제외해도 서구보다 뚜렷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에 대한 기소나 처벌이 느슨하다는 것도 적절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미국이 유럽과 달리 아직도 사형 제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 살인범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대신, 빈번한 거주지 이동, 연방제 정부형태, 관대한 사회적 풍토, 노예제의 유산 등, 네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빈번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지방 수준에서 공동체가 사회통제를 수행하기 어렵고, 연방제

아래서 사법체제가 지방별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 법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이민과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덕분에 범죄자에게도 정상을 참작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은 반면에, 노예제 아래서 형성된 폭력의 전통이 내전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다.[15)]

몽코넨의 발제에 대한 비평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법률사 전문가 엘리자베스 데일(Elizabeth Dale)의 견해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제도가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살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대신에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을 지녔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축적되기 전에는 미국의 높은 살인율을 올바르게 해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6)] 이것은 분명히 타당한 지적이었지만, 미국의 높은 살인율을 해명해보자는 지상토론회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비평이었다. 따라서 데일의 견해는 학계에서 주목을 끌지 못했다.

주목을 끈 것은 과감한 설명을 시도하는 다른 갈래의 비평이었다. 그런 비평을 제기한 것은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살인의 역사』의 저자 피터 스피렌부르그(Pieter Spierenburg)였다. 그는 오래 전부터 폭력의 역사를 탐구한 유럽사 전문가로서, 엘리아스의 이론이 유용하다고 역설해왔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높은 살인율도 그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엘리아스의 이론은 공격적 충동을 자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근대문화의 발전과 함께 폭력을 독점하는 근대국가의 대두라는 정치적 변화에 주의를 환기하는데, 이들 두 측면에서 미국

---

15) Eric Monkkonen, “Homicide: Explaining America’s Exceptionalism,”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1 (February 2006): 76-94. 또한 다음 문헌도 참고하라. Eric H. Monkkonen, *Murder in New York C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151-79.

16) Elizabeth Dale, “Getting Away with Murder,”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1 (February): 95-103..

은 유럽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노예제의 유산에 주목해야 한다. 농장주들이 중시하던 가치 가운데서 명예는 개인 사이의 사소한 알력을 살인에 이르도록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 문화는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에 흑인 사이에서도 확산되며 미국의 높은 살인율에 기여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폭력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살인을 비롯한 사적 폭력에서 드러나듯이 어디까지나 상대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국가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 비해 분명히 좁은 한계 안에 머무른다. 유럽에서는 근대 초기에 군주가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면서 중세 이래 전사로서 무력을 지녔던 지방 귀족을 압도하는 데 성공했고, 따라서 폭력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라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근대국가를 수립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시민이 무기를 휴대하는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함으로써, 국가의 폭력 독점에 분명한 한계를 설정했다.

>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중앙집권화 국면에 앞서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너무 일찍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미국혁명으로 인해 군주가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너무 일찍"이라는 것은 수사적 표현이지 가치 판단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주민이 무장 해제에 적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폭력의 독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념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민주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엘리트가 지방에서 사사로이 지배권을 수립하지 못하고, 보통사람들이 정당방위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독립전쟁 이전부터, 그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도, 미국인 가운데 다수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도움에 의지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지방 엘리트는 민주주의란 무력에 의지해 스스로 재산과 권익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보통사람들도 점차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다.[17]

---

17) Pieter Spierenburg, "Democracy Came Too Early: A Tentative Explanation

스피렌부르그의 비평은 적어도 몽코넨의 발제만큼이나 주목을 끌었다. 그 이유 가운데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거기에 도발적 명제와 함께 체계적 설명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몽코넨의 발제와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몽코넨은 기존 이론이 미국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론 자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그의 설명에서는 이론적 토대를 찾을 수 없다. 그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네 측면--빈번한 거주지 이동, 연방제 정부형태, 관대한 사회적 풍토, 노예제의 유산--에 주목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거론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지해 미국의 높은 살인율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이는 폭력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안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에 비하면, 스피렌부르그는 엘리아스의 이론을 토대로 삼고 미국의 특징에 접근한다. 따라서 "문명화 과정"이라는 큰 틀과 그것을 떠받치는 두 기둥, 즉 세련된 취향과 태도를 중시하는 근대문화의 발전과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하는 근대국가의 대두라는 두 기둥에 기대어 폭력의 역사를 바라본다. 그의 안목은 거장이 제시한 이론과 학계에서 전개된 정밀한 논의를 토대로 형성된 셈이다. 덕분에 그의 설명은 체계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낸다.

그렇지만 스피렌부르그의 견해에는 경시하기 어려운 결함이 있는 듯하다.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노예제의 유산을 강조하는 견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 말이다. 여기에도 다시 생각해볼 만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한다. 지금 지적해야 할 것은 미국의 국가에 관한 그의 이해가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스피렌부르그는

---

for the Problem of American Homicide," ibid., 104-114, 109-110. 또한 다음 문헌도 참고하라. Stephen Mennell, *The American Civilizing Process* (Cambridge: Polity, 2007), 122-57; 피테르 스피렌부르그, 『살인의 역사--중세에서 현대까지 살인으로 본 유럽의 풍경』, 홍선영 역 (개마고원, 2011).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중앙집권화에 앞서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국가가 지니는 특징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국가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는 이제 겨우 윤곽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살인율에 관한 논쟁이 시작된 2006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축적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미국에서 국가는 처음에 주(州) 정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에 주력했지만, 나중에는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규제하며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법원과 정당에 지나지 않던 국가기구도 거대하고 복잡한 관료제를 거느린 행정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18] 이렇게 발전하던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살인을 비롯한 폭력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제이다. 그런데도 스피렌부르그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엘리아스의 이론에서 근대국가의 대두라는 명제를 채용하면서도, 그 국가가 사적 폭력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나아가 실패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헤칠 수 있을 만큼 그 기제를 구체적으로 탐구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언제 독점했는지, 그 시기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이는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피상적 접근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스피렌부르그는 국가의 역할을 깊이 파헤치는 중요한 연구 성과조차 참고하지 않는다. 이미 1970년대부터 살인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

---

18) Oscar Handlin, *Commonwealth; A Study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American Economy: Massachusetts, 1774-186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47); Stephen Skowronek,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1877-19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William J. Novak, *The People's Welfare: Law and Regulation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이던 리처드 맥스웰 브라운(Richard Maxwell Brown)은 1991년에 『후퇴할 의무는 없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서를 발표했다. 그 요지는 한마디로 줄이면 19세기 미국에서 법원이 영국에서 이어지는 전통에서 벗어나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했고, 그 결과로 살인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영국은 중세 말부터 사적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일환으로 누구든 살해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 위협에 직면하면 후퇴할 수 있는 데까지 후퇴하며 물리적 충돌을 회피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보는 법률 전통을 확립했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더 이상 이 전통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위협에 직면한 시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그 과정에서 시민이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법원은 그것을 정당방위로 간주해 무죄방면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브라운이 역설하듯이 19세기 미국이 영국과 달리 살인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뜻한다.[19] 그것이 미국의 높은 살인율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도 미국인의 의식 속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폭력에 맞서 폭력을 쓸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스피렌부르그는 브라운의 견해를 간과한다.

그런 문제점은 스피렌부르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몽코넨과 데일도 브라운의 견해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스피렌부르그와 다를 바 없다. 두 사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 연방제와 사법제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지만, 그런 부분적인 지적을 넘어 국가의 역할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는 나아가 살인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 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단편적으로 거론되었지만, 필자의 과문 탓인

19) Richard Maxwell Brown, *No Duty to Retreat: Violence and Values in American History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지 몰라도 심층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언뜻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가와 폭력 사이의 관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홉스에 의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고, 지난 100년 동안에만 해도 막스 베버와 해나 아렌트를 거쳐 미쉘 푸코에 의해 중요한 주제로 거론되었다.[20] 그렇지만 종래의 논의에서는 공적 폭력이 주목을 끌었던 반면에, 사적 폭력이 경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국가가 사적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 어떤 제도에 의지해 왔는지, 그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런 제도를 언제, 어떻게 바꿔 왔는지, 그 윤곽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를 탐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거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이론적 준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을 비롯한 몇몇 이론이 있어서 살인율의 장기적 추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몽코넨과 데일, 그리고 스피렌부르그의 논의에서 국가의 역할이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취급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점은 다른 한편으로 사적 폭력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그런 폭력은 흔히 사회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주변적 현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역사학계에서도 사소한 주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현실과 다른 인식이다. 그런 폭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정에서 자행될 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또 직장과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더욱이, 그것은 계급이나 인종, 또는 젠더와 관

---

20)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 and ed.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77-128; Hannah Arendt,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1970);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1995); idem,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trans. Colin Gordon et al. (New York: Vintage, 1980).

계없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바꿔 말해, 사적 폭력은 근대국가의 폭력 독점이 어디까지나 상대적 현상이며, 그것도 사회적 위계질서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전개되는 역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역사학계에서는 특히 그렇다. 근대국가가 사적 폭력을 통제하는 과정은 좁게 보면 형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와 법원, 그리고 감옥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또 경찰에 관해서도 주목을 끄는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성과를 종합하며 근대국가가 사적 폭력을 통제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역사학계에서는, 사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까지 고조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 비춰볼 때, 위에서 살펴본 논쟁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문제점은 논객들의 시야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6년 논쟁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몽코넨도 스피렌부르그도 미국의 높은 살인율을 해명하는 데 유럽과 비교하며 분석하는 방법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야에 관해 먼저 지적할 것은 아시아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분류에 따르면, 아시아는 유럽과 함께 살인율이 3 미만에 머무르는 평온한 지역이다. 더욱이, 동아시아는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일본과 함께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는 북한과 몽골을 제외한다면 살인율이 대체로 0.6-0.7에 머무는 매우 평온한 지역이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이 근대화의 측면에서 서부유럽에 비해 분명히 뒤떨어져 있지만, 살인율 측면에서는 그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는 의문은 그 자체로 흥미로울 뿐 아니라 두 지역의 살인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몽코넨이나 스피렌부르그는 그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

라 사적 폭력을 다루는 미국과 유럽의 역사학자들에게서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동아시아 역사학자들이 살인을 비롯한 사적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사나 중국사는 필자의 전문 분야와 거리가 멀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들 분야에서 그런 폭력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살인율을 탐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유럽중심주의적 시야를 지닌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처럼 2006년에 벌어졌던 논쟁은 기본적으로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특징을 놓고, 기존 이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는 학자와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 이론을 고수하는 학자 사이의 대결이었다. 따라서 거기서는 사실보다 이론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논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몇 문제점도 있었다. 하나는 어느 쪽도 국가의 역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두 쪽의 시야가 미국과 유럽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은 그로부터 5년 뒤에 벌어진 논쟁에서도 보인다. 그렇지만 제2차 논쟁에서는 주목을 끄는 다른 문제점도 나타난다.

III. 제2차 논쟁

제2차 논쟁은 2011년에 벌어졌으나, 발단은 그보다 2년 앞서 간행된 저술에 있었다. 역사학자 랜돌프 로쓰(Randolph Roth)가 2009년에 발표한 『미국의 살인』을 놓고, 스피렌부르그가 범죄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 『범죄와 역사, 그리고 사회』에 비평을 쓰고 로쓰가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번에도 논쟁은 미국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거부하는 학자와 엘리아스의 이론을 고수하는 학자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익숙한 구도 위에서도, 새로운 논쟁은 이전

과 달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먼저 로쓰가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 설명을 시도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특징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르는 시기에 형성되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식민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던 17세기 초부터 노예제를 놓고 지역 갈등이 악화되기 시작했던 1840년대까지 두 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에는, 서부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살인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물론, 독립전쟁이 진행되던 기간에는 그런 경향이 반전되었지만, 그것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840년대 말부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살인율이 서구만큼 낮았던 북부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살인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북부에서는 가족이나 연인관계에서 살인 사건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롯한 노사관계에서도 늘어났다. 남부에서는 일찍부터 살인율이 높았는데, 이제 서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은 다양한 종류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다--강도, 강간, 음주, 도박, 채무, 소유권 분쟁, 흑인이나 원주민, 또는 이민에 대한 증오, 등등. 그랬던 만큼 살인 사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벌어졌다. 이런 경향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0년대까지 두 세대 넘는 기간에 확립되었고, 그 이후로 20세기 내내 미국은 서구보다 훨씬 높은 살인율에 시달렸다.

그런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로쓰는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을 비롯한 기존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이론을 제기한다. 그 출발점은 17세기 초부터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450년이 넘는 기간에 미국과 서구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 대부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것이 거의 모두 성인 남성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 그리고 그 동기가 억압이나 착취 같은 객관적 조건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어서 로쓰는 이렇게 선언한다. “폭력적 성향은 감정과 신념에서 유래하며, 그

것을 설명하는 관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의 비율이 역사를 통해 등락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감정과 신념을 분별하며 살인율의 등락을 조장하는 상황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런 감정과 신념이 무엇보다도 "국민 형성"(nation-building)에 따라 좌우된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로쓰는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를 다음과 같은 네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정부가 안정되어 있고, 그 법률과 사법제도가 공평성을 유지하며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신념
2. 정부와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를 신뢰하는 감정과 그 적법성에 대한 신념
3. 애국심과 공감대, 그리고 인종이나 종교, 또는 정치를 토대로 형성되는 유대관계에서 유래하는 동료 감정
4. 사회적 위계질서가 정통성이 있고,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러울 수 있으며,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21)]

그렇다면 로쓰가 말하는 "국민 형성"은 차라리 국민 통합으로 새겨야 할 듯하다. 왜냐하면 그가 중시하는 요인들은 결국 사람들이 정치체제와 사회질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서로 믿고 가깝게 지낼 만큼 탄탄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그는 국민이 얼마나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한 비평은 대체로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다. 스피렌부르그는 먼저 로쓰가 제시하는 살인율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의 살인율은 193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전국 수준에서 산정되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해 로쓰는 몇몇 군(郡)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21) Randolph Roth, *American Hom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17, 18.

그것을 토대로 전국의 살인율을 추산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나 군 수준에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살인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거나 그 반대로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전국 수준의 살인율을 추산한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로쓰가 살인율을 산정할 때 인구 전체가 아니라 성인 인구를 토대로 삼는다는 것, 또 살인 사건 가운데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없는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런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런 방법을 따르면, 살인율이 높게 나타나는 동시에 외국과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로쓰가 말하는 국민의 감정과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율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스피렌부르그는 끝으로 로쓰가 말로는 엘리아스의 이론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원용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결국 엘리아스의 이론에 따르면 근대 유럽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너무 일찍 시작되었다"는 명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22)]

로쓰의 응답도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엘리아스의 이론에 대한 논의로 끝난다. 로쓰는 먼저 사료의 수집에서 표본의 선정을 거쳐 감정과 신념의 측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들어 있는 장점에 주의를 환기한다.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엘리아스의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로쓰는 무엇보다도 세련된

---

22) Pieter Spierenburg, "American Homicide: What Does the Evidence Mean for Theories of Violence and Society?" *Crime, Histoire & Sociétés / Crime, History & Societies* 15.2 (December 2011): 123-29; idem, "Questions that Remain: Pieter Spierenburg's Reply to Randolph Roth," ibid., 147-50. 또한 다음 비평도 참고하라. Jill Lepore, "Rap Sheet. Why is American History So Murderous?" *New Yorker*, November 9, 2009, 79-83.

취향과 태도를 취하며 공격적 충동을 자제하는 등, 근대문화의 발전이 살인율의 하락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정착하기 이전에 살인율이 하락했고, 18세기 말에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 있었는데도 오히려 살인율이 상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스피렌부르그가 지적한 것처럼 엘리아스의 이론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엘리아스는 살인을 비롯한 폭력의 역사적 추이와 근대문화의 발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언급할 때, 로쓰의 비판처럼 수십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로쓰는 그런 문화보다 국민 통합이 살인율 하락에 기여했다는 견해를 강조한다.[23] 이는 분명히 엘리아스의 이론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논쟁이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에서 보이는 미국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로쓰가 종래에 동원되었던 것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고, 또 스피렌부르그도 인정하듯이 세련된 통계학적 방법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그의 『미국의 살인』은 분명히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스피렌부르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가 채용하는 방법이 살인율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며 그 특징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가 제시하는 해석 틀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 로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친분관계가 없는 성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국민 형성"에 좌우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런 종류의 살인 사건

23) Randolph Roth, "Yes We Can: Working Together toward a History of Homicide that is Empirically, Mathematically, and Theoretically Sound," *Crime, Histoire & Sociétés / Crime, History & Societies* 15.2 (December 2011): 131-45.

이 국민 사이에서 형성되는 동료 감정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나 신념이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으로 진부한 말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을 극단적 폭력으로 이끌고 가는 요인은 누적된 불만과 왜곡된 욕구에서 인종주의적 증오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로쓰가 말하는 "국민 형성"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요인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요인을 경시하거나 간과한다.

"국민 형성"의 개념이 정치적·사회적 요인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런 요인 가운데서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노예제의 유산이다. 이것은 미국의 살인율에 관한 두 차례의 논쟁에서 언제나 거론되었지만, 한 번도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지배적 해석이라 할 만한 것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로쓰는 몽코넨이나 스피렌부르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면적으로 배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배적 해석 안에서도 강조점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한마디로 줄이면,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노예제의 유산 가운데서 사회·경제적 측면이 주목을 끌었지만,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문화적 측면이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로쓰는 『미국의 살인』에서 스승 몽코넨의 견해를 따라 노예제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노예제의 사회·경제적 유산도 경시하지 않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의 개념에 비춰보며 노예제의 유산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한다.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배적 해석과 그 강조점의 변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지배적 해석은 1970년대 초에 폭력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던 선도적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그들에게 노예제의 사회·경제적 유산은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이미 1940년대에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의 『미국의 아들』과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어서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의 포괄적이고 상세한 조사를 통해 뚜렷하게 밝혀졌으며, 1960년대에는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의 통렬한 비판과 함께 미국의 대도시를 휩쓸었던 인종폭동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니 말이다.[24] 그래서 헨리 스틸 코매저(Henry Steele Commager)와 리처드 호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를 비롯한 몇몇 역사학자들은 미국에서 폭력이 지니는 역사적 기원과 전통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예제의 사회·경제적 유산에 대해 관심을 환기했다. 인종폭동의 진앙이었던 게토는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의 온상이었고, 거기에 갇혀 있던 흑인 청소년들이 노예제의 폐지 이후에도 지속된 인종주의적 차별로 인해 빈곤과 무지, 그리고 좌절과 실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에 호프스태터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그를 도와 폭력의 역사를 탐구하던 마이클 월러스(Michael Wallace)는 노예제와 그 유산이 노동자와 민족 집단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전통과 함께 미국의 역사를 점철하는 폭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런 폭력이 대체로 주류가 소수집단에 대해 행사한 것이라는 데에 미국의 특징이 있다고 진단했다.[25] 이는 사실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던 미국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되던 견해였다. 이렇게 해서 70년대 초에는 노예제의 사회·경제적 유산을 중시하는

---

24) 리처드 라이트, 『미국의 아들』, 김영희 역 (창비, 2012); Gunnar Myrdal, *An American Dilemma: The Negro Problem and Modern Democracy* (1944; New York: Pantheon Books, 1962); Michael Harrington, *The Other America: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62; New York: Touchstone Books, 1997).

25) Henry Steele Commager, "The History of American Violence: An Interpretation," in V*iolence: The Crisis of American Confidence,* ed. Hugh Davis Graha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3-26; Richard Hofstadter, "Reflections on Violence in America," in *American Violence: A Documentary History*, ed. Richard Hofstadter and Michael Wall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3-43; Michael Wallace, "The Uses of Violence in American History," *American Scholar* 40.1 (Winter 1970-71): 81-102.

해석이 미국 역사학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해석은 1980년대 중엽부터 노예제의 문화적 유산에 주목하는 다른 견해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이 변화를 선도한 것은 19세기 남부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던 버트럼 와이어트-브라운(Bertram Wyatt-Brown)이었다. 1982년에 간행된 『남부의 명예 관념』에서, 그는 19세기 남부 백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명예가 지배적 가치로 존중되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명예는 머나먼 고대세계에서 형성된 남성 중심적 관념으로서, 무엇보다도 개인이 지니는 용맹과 가계(家系), 재력 등을 토대로 그의 사회적 평판을 좌우하는 가치였다. 그리고 이 가치는 사회적 위계질서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했다. 그것은 근대 유럽을 거쳐 북미대륙으로 전파되었는데, 북부에서는 일찍부터 쇠퇴하며 내면적 존엄성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반면에, 남부에서는 노예제를 바탕으로 확립된 사회질서 덕분에 19세기 중엽에도 면면한 전통으로 유지되었다. 거기서는 인종관계에서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명예가 백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26)]

에드워드 에이어즈(Edward L. Ayers)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예 관념이 남부에서 폭력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세기 남부에서 벌어졌던 범죄와 처벌을 검토하고, 그것이 법과 질서가 수립되지 않은 개척시대에 국한되었던 현상이 아니라 영국에서 이식된 전통이 지속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남부에서 식민지 개척을 주도하던 영국인들은 노예제를 이용해 재산을 축적하고 신분의 상승을 도모하며 스스로 영국의 귀족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고, 그래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며 명예를 중시하고 폭력에 호소하는 태도까지 모방했다.

---

26) Bertram Wyatt-Brown, *Southern Honor: Ethics and Behavior in the Old South*, 25th anniversary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그것은 소수의 대농장주들에게 국한되던 현상이 아니었다. 그들처럼 많은 노예를 거느리며 큰 부를 거머쥐고 호사를 누리려 꿈꾸던 다수의 백인 농민에게도 확산되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명예 규범"(code of honor)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27]

그런 견해는 역사학자와 사회과학자뿐 아니라 언론인 사이에서도 널리 수용, 강화되면서, 미국의 높은 살인율을 설명하는 데 흔히 활용되었다. "명예 규범"은 백인은 물론이요 흑인 사이에서도 폭력적 전통이 지속되는 데 기여했고, 결국 20세기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서 흑인이 히스패닉을 비롯한 다른 소수민족과 함께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게토에서 "거리 규범"(code of streets)으로 변형되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에게서 "디스"(dis)당하지 않도록 적수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맞서 싸우겠다는 태도를 갖추고 또 그것을 언어와 표정에서 복색과 행동거지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현한다는 것이다.[28] 이처럼 노예제의 문화적 유산에 주목하는 견해는 위에서 언급한 제1차 논쟁에서 몽코넨의 발제는 물론이요 그에 대한 스피렌부르그의 비평에도 수용된다.

---

27) Edward L. Ayers, *Vengeance and Justice: Crime and Punishment in the Nineteenth-Century So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idem, "Legacy of Violence," *American Heritage*, October 1991, 102-09.

28) Grady McWhiney, *Cracker Culture: Celtic Ways in the Old South*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8); Richard E. Nisbett and Dov Cohen, *Culture of Honor: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New York: HarperCollins, 1996); Elijah Anderson, "The Code of Streets," *Atlantic*, May 1994, 80-94.
이런 폭력문화론은 근래에 역사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Jeffrey S. Adler, "Murder, North and South: Violence in Early-Twentieth-Century Chicago and New Orleans,"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4.2 (May 2008): 297-324.

로쓰는 이들 두 갈래의 지배적 해석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먼저 서론에서, 그는 종래의 해석이 미국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명예 문화"(cultures of honor)가 정착한 지역에서도 시대나 지방에 따라 살인율이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는 노예제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로쓰의 요점은 살인율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등락하는데, 이는 기존 해석에서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로쓰는 본문에서 문화적 전통과 함께 사회·경제적 폐단에 대해 언급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남부에서 "명예 문화"가 살인을 비롯한 폭력이 빈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하거나, 20세기 미국에서 살인율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종주의적 차별에 대해 서술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것이 살인율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어도 "궁극적 요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궁극적 요인"은 미국인들이 하나의 국민으로서 지니는 유대관계에 일어나는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29]

필자는 그의 견해에 설득력이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화적 전통에 주목하든 사회·경제적 폐단에 주목하든 간에, 종래의 해석이 로쓰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살인율의 역사적 추이 가운데서 수십 년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백 년간에 걸쳐 일어나는 장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다. 더욱이, 인종이나 노예제, 또는 "명예 규범"을 "직접적 요인"으로 취급하고 국민 통합에 연관되는 감정과 신념을 "궁극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로쓰의 견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인종이나 노예제는 분명히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어째서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는 요소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

29) Roth, *American Homicide*, 12-13, 210-18, 435-68.

그런데도 “궁극적 요인” 운운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주장하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가설은 노예제의 유산을 비롯해 미국의 살인율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로쓰의 해석 틀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노예제의 유산을 종속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국민 형성”이라는 그의 개념은 미국의 높은 살인율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그는 노예제의 유산이 지니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깊이 천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결국, 제2차 논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개발된 이론을 고수하는 학자와 미국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 대안을 모색하는 학자 사이에서 벌어졌으나, 거기에 참여한 논객들은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그 아래에 깔려 있는 해석 틀을 검토하지 않으며 그 틀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IV. 이론상의 과제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론적 토대에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듯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적 폭력이 사회생활이라는 넓은 맥락 속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미국의 살인율에 관한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은 분명히 넓은 맥락을 의식하며, 그것이 폭력의 역사적 추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그렇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몽코넨은 미국의 특징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묻지 않는다. 로쓰는 “국민 형성”의 개념을 토대

로 독자적인 해설 틀을 수립하지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특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거나 아예 간과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스피렌부르그는 엘리아스의 이론에 입각해 민주정치의 발전 시기에 주목하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반면에, 노예제의 유산과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처럼 논객들이 넓은 맥락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폭력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의 전문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역사학자들은 대개 선택하는 주제나 그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범죄학자를 비롯한 사회과학자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사실, 그들은 대부분 역사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역설하며 사회과학역사학회(Social Science History Association)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이런 측면에서 몽코넨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그래서 이 학회에서 1992-93년도 회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 로쓰는 그의 뒤를 이어 중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 공개하는 대규모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30] 그렇지만 사고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다른 역사학자보다 사회과학자에 더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다. 경제사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흔히 연구하는 주제에 좁게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맥락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폭력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사회사나 문화사의 시각과 방법에 의지하며 넓은 맥락을 천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31] 이

30) Ohio State Universit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Historical Violence Database, https://cjrc.osu.edu/research/interdisciplinary/hvd (2018년 10월 19일 접속).

31) Clare V. McKanna, Jr., *Homicide, Race, and Justice in the American West, 1880-1920*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7); idem, *Race and*

들의 존재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맥락을 경시하는 다수 전문가들의 자세는 뚜렷한 변화를 겪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 이유는 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오늘날 폭력은 흔히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주변부에서나 존재하는 사소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전시에나 일시적으로 허용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지만, 평시에는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요소로 취급된다. 물론, 이런 인식은 오래 전에 막스 베버가 설파하고 엘리아스가 부연한 바 있듯이 폭력을 독점하려는 근대국가의 대두와 그것을 제어하려는 근대문화의 발전 덕분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에 대한 탐구를 저해하는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20세기 후반에 아렌트가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고 또 푸코가 권력이 "감시와 처벌"을 통해 범죄와 함께 폭력을 통제하는 방식을 폭로했지만, 폭력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는 듯하다. 그 가운데서도 사적 폭력은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20세기 말에 와서야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데서 드러나듯이, 사적 폭력은 오랫동안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경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넓은 맥락 속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안목도 개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안목은 엘리아스의 이론에서 엿볼 수 있으나, 그래도 그것이 정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개발된 일반 이론, 그것도 유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이론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이론에서는 유럽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특징이나 국제적 차이가 포착되지만, 다른 대륙에서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에서 계급이 중시되는 반면에 인종이 젠더와 함께 경시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종관

Homicide in 19th-Century California (Reno, NV: University of Nevada Press, 2002): David Peterson del Mar, *Beaten Down: A History of Interpersonal Violence in the Wes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Jeffrey S. Adler, *First in Violence, Deepest in Dirt: Homicide in Chicago*, *1875-192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계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메리카에서 그 이론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한 자세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아메리카에서도 미국은 특이한 국가이다. 그 국가는 최근에 축적된 연구 성과에서 드러나듯이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그것은 오랫동안 대외관계에서 강력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작고 약한 존재로 여겨졌으나, 이제 다양한 민간 기구에 의지하며 점차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생활을 통제하며 거대하고 강력한 기구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32] 바꿔 말해, 미국의 국가는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관료제와 군대, 그리고 경찰에서 구현되는 공적 권위에 못지않게 시민이 지니는 사적 권력에 많이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이론에서 간과되었지만, 필자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현상인 듯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높은 살인율을 해명하는 데 핵심적인 관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뜻에서 공적 권위가 사적 권력과 지니는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것이 사적 권력 가운데서도 폭력과 지니는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관계는 폭력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거론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몽코넨은

---

32) William J. Novak, "The Myth of the 'Weak' American Stat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3.3 (June 2008): 752-72; Max M. Edling, *A Revolution in Favor of Government: Origins of the U.S. Constitution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idem, *A Hercules in the Cradle: War, Money, and the American State, 1783-186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atrick Griffin, *American Leviathan: Empire, Nation, and Revolutionary Frontier* (New York: Hill & Wang, 2007); Brian Balogh, *A Government Out of Sight: The Mystery of National Authorit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idem, *The Associational State: American Governance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5); Gary Gerstle, *Liberty and Coercion: The Paradox of American Govern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James T. Sparrow, William J. Novak, and Stephen W. Sawyer, eds., *Boundaries of the State in US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폭력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운데 노예제에 주목하면서, 저 악명 높은 제도가 노예 주인의 사적 폭력과 함께 국가의 공적 권위에 토대를 삼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33] 그러나 그는 그것을 논의하는 데 짤막한 단락 하나를 할애할 뿐이고, 깊이 천착하지 않는다.

공적 권위와 사적 폭력의 관계를 천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예제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폭력--노예 주인이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폭력,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국가에 의지하며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에 의지하는 제도라는 점은 이미 20세기 중엽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1956년에 간행된 저 유명한 『독특한 제도』에서, 케네쓰 스탬프(Kenneth M. Stampp)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서, 노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위해" 주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그는 노예가 예속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게 만들기 위해, 물질적 보상과 종교적 설교를 비롯한 다양한 회유책을 썼을 뿐 아니라 채찍질과 족쇄 채우기에서 낙인찍기와 발가락 자르기까지 끔찍한 강경책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탬프는 이렇게 덧붙인다. "처벌하는 권한은 국가가 주인에게 부여한 것인데, 이것이 없었다면 노예제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통제 기법은 부차적 중요성을 지녔을 뿐이다."[34] 이 견해는 1970년대 중엽에 경제사 전문가들의 도전을 받기도 했으나, 그에 대한 사회사 연구자들의 반박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했다. 그것은 또한 근래에 새로운 연구 동향 덕분에 크게 보강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대두한 새로운 동향은 미국의 노예제를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노예제에서 폭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상세하고 면밀하게 밝혀낸다. 특히, 에드워드 뱁티스트(Edward E. Baptist)는 농장주들이

---

33) Monkkonen, *Murder in New York City*, 156-57.

34) Kenneth M. Stampp, *The Peculia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New York: Vintage Books, 1956), 141-91, 171.

노예 개개인의 작업 내용과 성과를 나날이 기록하고, 다음 해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지시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채찍질을 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방법을 썼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노예제는 바꿔 말하면 "채찍질 장치"(whipping machine)였다는 것이다.[35] 이런 뜻에서, 노예제는 적어도 공적 권위만큼이나 사적 폭력에 의존하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처럼 사적 폭력이 공적 권위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은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적 폭력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재건시대에 남부에서 벌어졌던 폭력 사태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근래에 발표된 연구 성과에 따르면 매우 심각한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연구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2000년에 질러스 밴덜(Gilles Vandal)이 발표한 『남부의 폭력에 대한 재고』이다. 여기서 저자는 재건시대의 루이지애나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먼저 1866년부터 1884년까지 18년 동안, 4,986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 기간에 루이지애나 인구가 73만 내지 94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살인율이 29.5에서 38.1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밴덜이 관심을 쏟는 것은 루이지애나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살인율은 도시에서 1860년대 후반과 70년대 중엽에 40까지 올라갔다가 10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농촌에서는 1860년대 말엽에 150까지 치솟았다가 40으로 떨어졌고 다시 70년대 중엽에

35) Robert William Fogel and Stanley L. Engerman,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4); Herbert G. Gutman, *Slavery and the Numbers Game: A Critique of* Time on the Cros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5); Edward E. Baptist,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Slavery and the Making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2014).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배영수, 「"새로운 자본주의 역사"의 가능성과 문제점」, 『서양사연구』 58 (2018): 129-58.

70으로 올라갔다가 20 내외로 내려갔다. 이런 차이는 저자에 따르면 문화적 전통으로써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기존 연구자들이 폭력 문화에 주목한 반면에, 남부 안에서 나타나는 지역 사이의 차이를 경시했다는 것이다. 밴덜은 그런 차이가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루이지애나에서 흑인은 전체 인구 가운데서 5분의 3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했고, 따라서 재건시대에는 공화당의 집권을 도우며 스스로 공직을 차지하는 등, 정치적 권위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호소하며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노예제에서 해방된 흑인들이 예속 노동과 유사한 집단 노동이나 열악한 소작 조건을 강제하는 지주들에게 저항하는 등, 쟁의를 일으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처럼 순종하지 않는 흑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은 백인 중산층은 물론이요 흑인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던 백인 소농과 빈농도 끌어들여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며 인종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흑인에게 다시 예속적 지위를 강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흑인은 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간에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며 참정권과 함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다. 그 결과, 재건시대 루이지애나는 사실상 무법상태에 빠졌고, 폭력은 인종과 인종 사이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인종 내부의 갈등으로도 확산되었다. 밴덜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이후 미국의 살인율에서 보이는 특징적 패턴--살인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흑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등등--이 나타났다.[36] 이는 분명히 미국의 높은 살인율이 어떤 계기에서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해석이다. 그것은 또한 사적 폭력이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 남부에서 인종질서를 확립하는 데

36) Gilles Vandal, *Rethinking Southern Violence: Homicides in Post-Civil War Louisiana, 1866-1884*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0). 또한 다음 문헌도 참고하라. Barry A. Crouch, "A Spirit of Lawlessness: White Violence, Texas Blacks, 1865-1868," *Journal of Social History* 18 (Winter 1984): 217-32.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견해이다.

그 점은 재건시대를 넘어 적어도 20세기 중엽까지 연장되는 명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흔히 사적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는 린칭(lynching)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것은 일부 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흑인에 대해 사법제도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단죄한다는 명목 아래 사사로이 저지르는 폭력을 가리킨다. 이런 폭력을 저질렀던 백인들은 그 구실로 흔히 백인 여성에 대한 강간을 내세웠지만, 때로는 백인에 대한 불손한 언행을 들기도 하는 등, 인종질서에 대한 흑인의 도전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인종 격리체제라는 눈에 보이는 제도로 구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들은 린칭을 암암리에 저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행사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 열차를 운행하고 기념품을 판매하며 관광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어느 조사에 따르면 1882년부터 1968년까지 모두 4,745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흑인은 3,446명에 이르렀다. 흑인 희생자는 전체에서 4분의 3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린칭은 1900년대 초부터 서서히 감소했고, 1930년대 중엽부터는 1년에 10건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뚜렷하게 쇠퇴했다.[37] 그것이 절정에 도달했던 1890년대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바라던 명백하고 엄격한 인종질서가 저 유명한 플레시 판례(Plessy case)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방 대법원의

37) Tuskegee University Archives Repository, “Lynching, Whites & Negroes, 1882-1968,” http://archive.tuskegee.edu/archive/handle/123456789/511 (2017년 7월 14일 접속); Equal Justice Initiative, *Lynching in America: Confronting the Legacy of Racial Terror*, 2nd ed. (Montgomery, AL: Equal Justice Initiative, 2015); Stuart E. Tolnay and E. M. Beck, *A Festival of Violence: An Analysis of Southern Lynchings, 1882-193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린칭이 남부의 살인율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Steven F. Messner, Robert D. Baller and Matthew P. Zevenbergen, “The Legacy of Lynching and Southern Homicid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4 (August 2005): 633-55.

권위에 힘입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린칭을 피해 남부에서 북부 대도시로 이주하는 흑인이 늘어남에 따라, 남부는 저렴한 노동력의 감소라는 의외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적 폭력은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남부에서 인종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연구에서 부각되듯이, 그것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법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며 공적 권위에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인종 격리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그 권위를 옹호하는 기능을 발휘했다.[38] 한마디로 줄이면, 사적 폭력은 공적 권위와 밀고 당기는 길항관계를 지녔을 뿐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동반관계도 맺었던 것이다.

그 복잡한 관계는 20세기 중엽에 인종 격리체제가 철폐된 이후에 쇠퇴했지만, 현대 미국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요즈음 미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대부분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종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흑인 사이에서, 5분의 2 이상이 백인 사이에서, 나머지는 히스패닉을 비롯한 다른 인종 집단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흑인은 전체 인구 가운데서 8분 1에 지나지 않으므로, 흑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은 백인의 일곱 배가 넘고, 또 흑인이 살인을 당하는 비율도 백인의 여섯 배나 된다.[39] 이런 폭력은 언뜻 보기에 흑백관계를 비롯한 인종관계와 무관한 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이라는 점, 특히 인종관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전통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밴덜이 지적한 바와 같이, 흑

38) Michael J. Pfeifer, *Rough Justice: Lynching and American Society, 1874-1947*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4); idem, *The Roots of Rough Justice: Origins of American Lynch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1); Ashraf H. A. Rushdy, *American Lynch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39)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Homicid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1980-2008,” https://www.bjs.gov/index.cfm?ty=pbdetail&iid=4944 (2018년 10월 22일 접속).

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전통은 재건시대에 형성되었다. 흑인은 노예제 아래에서 살인을 비롯한 폭력을 거의 저지르지 않았으나, 무법상태에 가까웠던 재건시대에 이르면 백인의 탄압에 맞서 싸우면서 다른 흑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재건시대의 무법상태는 흑인의 폭력 전통에서 중요한 계기라 해도 그 기원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이미 1970년대에 지배적 해석을 제시한 역사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그 전통은 노예제에서 시작해서 인종 격리체제를 거쳐 오늘날 게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의 기원을 포함하는 서양의 근대사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바로 여기에 미국에서 사적 폭력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거기에 근대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에서 매우 높은 살인율이 나타나는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근본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미국에서 나타나는 공적 권위와 사적 폭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의 과제로 떠오른다. 그 관계는 새로운 과제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근래에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취급되어 왔다. 그들 가운데서 주목을 끄는 인물로는 먼저 찰스 틸리(Charles Tilly)를 들 수 있다. 그는 유럽에서 전쟁과 함께 전쟁에 대비하는 정책이 근대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40]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수용되는 이 중요한 견해에서는, 그렇지만 근대국가 내부에서 형성되는 공적 권위와 사적 폭력의 관계가 거론되지 않는다.

그보다 흥미로운 견해는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노쓰(Douglas C. North)가 두 사람의 동료와 함께 저술한 『폭력과 사회질서』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그들은 서양의 근대적 발전에서 폭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 수천 년 동

40)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revised ed. (Oxford: Blackwell, 1992).

안에 부침했던 수많은 사회는 모두 폭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폭력은 특권을 지니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는 노쓰를 비롯한 저자들이 보기에 자연상태에서 그리 멀지 않았으므로 "자연국가"(natural state)라 명명된다. 그러나 근대 유럽에서는 엘리트가 폭력을 국가에 집중시키는 한편,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며 부를 추구하는 기회를 열어주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체제가 대두했고, 또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일찍이 그런 체제를 수립한 몇몇 국가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노쓰를 비롯한 저자들은 그 새로운 체제를 "통로가 열려 있는 체제"(open access orders)라 부른다. 또 그리로 이행하는 과정이 근대--특히 1700년부터 1850년까지 150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그 기간에 폭력에 일어난 변화는, 즉 그것이 유력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구로 집중되는 변화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폭력의 함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버의 유명한 명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폭력에 접근하면서 국가란 폭력의 합법적 사용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지니는 실체라는 베버의 가설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는 셈이다."[41]

노쓰 등이 제시하는 견해는 베버의 명제를 가설로 취급하자는 바람직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적 권위와 사적 폭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뚜렷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1850년까지 이른바 "통로가 열려 있는 체제"로 이행했다는 주장은 필자

---

41) Douglass C. North, John Joseph Wallis, and Barry R. Weingast, *Violence and Social Orders: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Hum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58.

가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320만 명의 흑인 노예들, 전체 인구 가운데 14%에 이르던 이 집단을 간과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견해이다. 더욱이, 노쓰를 비롯한 저자들은 노예제가 국가의 공적 권위뿐 아니라 농장주를 비롯한 백인의 사적 폭력에도 의존하던 제도라는 점을 간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는 점, 또 사적 폭력과 공적 권위 사이에 길항관계와 함께 동반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이런 미국의 특징도 간과한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폭력론과 함께 국가론을 재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제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것은 노쓰 같은 학자들이 간과하는--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로쓰도 "국민 형성" 운운하면서도 간과하는--국민의 개념인 듯하다. 국민은 폭력과 국가에 관한 논의에서 암묵적 전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물론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하는 근대국가이다. 이 근대국가에서 국민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통치의 주체로서, 개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공적 권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국민 사이에서는 사적 폭력과 공적 권위가 길항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이 관계가 국민과 국민이 아닌 존재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존재는 서구 국가에서 주목을 끌지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노예제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노예제는 17세기 중엽 남부에 자리를 잡을 때부터 노예를 시민이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 또 노예제가 철폐된 다음에는, 인종 격리체제가 남부 흑인을 시민이면서도 시민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가는 30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바꿔 말해 국가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때까지--대다수 흑인이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게 억제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이 노예제와 인종 격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적 폭력과 공적 권위는 길항관계를 넘어 동반관계도 맺었는데, 이 복잡한 관계는 미

국에 거주하는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관계는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예외론을 들먹이려는 생각은 없다. 유럽 중심주의적 시야에서 벗어나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까지 살펴본다면, 미국의 특징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쿠바나 아이티, 또는 브라질처럼 노예제의 경험을 지니고 근대국가를 만든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민과 비시민 사이의 관계가 외면하기 어려운 쟁점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글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이다.

Works Cited

배영수. 「“새로운 자본주의 역사”의 가능성과 문제점」. 『서양사연구』 58 (2018): 129-58.

라이트, 리처드. 『미국의 아들』, 김영희 역 (창비, 2012).

스피렌부르그, 피테르. 『살인의 역사--중세에서 현대까지 살인으로 본 유럽의 풍경』. 홍선영 역 (개마고원, 2011).

엘리아스, 노르베르트. 『문명화 과정』, 박미애 역 (한길사, 1996).

Adler, Jeffrey S. *First in Violence, Deepest in Dirt: Homicide in Chicago, 1875-192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_____. “Murder, North and South: Violence in Early-Twentieth-Century Chicago and New Orleans.”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4.2 (May 2008): 297-324.

Anderson, Elijah. “The Code of Streets.” *Atlantic*, May 1994, 80-94.

Arendt, Hannah.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1970.

Ayers, Edward L. *Vengeance and Justice: Crime and Punishment in the Nineteenth-Century So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_____. “Legacy of Violence.” *American Heritage*, October 1991, 102-09.

Balogh, Brian. *A Government Out of Sight: The Mystery of National Authorit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_____. *The Associational State: American Governance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5.

Baptist, Edward E.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Slavery and the Making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2014.

Brown, Richard Maxwell. *Strain of Violence: Historical Studies of American Violence and Vigilant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_____. *No Duty to Retreat: Violence and Values in American History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Brearley, H. C. *Homicide in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2.

Commager, Henry Steele. “The History of American Violence: An

Interpretation." In *Violence: The Crisis of American Confidence*, ed. Hugh Davis Graha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3-26.

Courtwright, David. Review of *Murder in America* by Roger Lan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64.3 (August 1998): 572-74.

Crouch, Barry A. "A Spirit of Lawlessness: White Violence, Texas Blacks, 1865-1868." *Journal of Social History* 18 (Winter 1984): 217-32.

Dale, Elizabeth. "Getting Away with Murder."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1 (February 2006): 95-103.

Edling, Max M. *A Revolution in Favor of Government: Origins of the U.S. Constitution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_____. *A Hercules in the Cradle: War, Money, and the American State, 1783-186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Eisner, Manuel. "Long-Term Historical Trends in Violent Crime." *Crime and Justice* 30 (2003): 83-142.

Equal Justice Initiative, *Lynching in America: Confronting the Legacy of Racial Terror*. 2nd ed. Montgomery, AL: Equal Justice Initiative, 2015.

Fogel, Robert William, and Stanley L. Engerman.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4.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Trans. Colin Gordon et al. New York: Vintage, 1980.

_____.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1995.

Gat, Azar.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Gerstle, Gary. *Liberty and Coercion: The Paradox of American Govern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Gordon, Linda. *Heroes of Their Own Lives: The Politics and History of Family Violence: Boston, 1880-1960*. New York: Viking Press, 1988.

Griffin, Patrick. *American Leviathan: Empire, Nation, and Revolutionary*

Frontier. New York: Hill & Wang, 2007.

Gurr, Ted Robert. "Historical Trends in Violent Crime: A Critical Review of the Evidence." *Crime and Justice* 3 (1981): 295-353.

Gutman, Herbert G. *Slavery and the Numbers Game: A Critique of* Time on the Cros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5.

Handlin, Oscar. *Commonwealth; A Study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American Economy: Massachusetts, 1774-186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47.

Harrington, Michael. *The Other America: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62; New York: Touchstone Books, 1997.

Hobbes, Thomas. *Leviathan*. Ed. C. B. Macpherson. 1651; London: Penguin Books, 1981.

Hofstadter, Richard. "Reflections on Violence in America." In *American Violence: A Documentary History*, ed. Richard Hofstadter and Michael Wall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3-43.

Keeley, Lawrence H. *War before Civi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Lane, Roger. *Roots of Violence in Black Philadelphia, 1860-19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_____. *Murder in America: A History*.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97.

_____. "Murder in America: A Historian's Perspective." *Crime and Justice* 25 (1999): 191-224.

LeBlanc, Steven A. *Constant Battles: The Myth of the Peaceful, Noble Savage*.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3.

Leonard, Ira M., and Christopher C. Leonard. "The Historiography of American Violence." *Homicide Studies* 7.2 (May 2003): 99-153.

Lepore, Jill. "Rap Sheet. Why is American History So Murderous?" *New Yorker*, November 9, 2009, 79-83.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eter Laslett. 16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McKanna, Jr., Clare V. *Homicide, Race, and Justice in the American West, 1880-1920*.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7.

_____. *Race and Homicide in 19th-Century California*. Reno, NV: University of Nevada Press, 2002.

McWhiney, Grady. *Cracker Culture: Celtic Ways in the Old South*.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8.

Mennell, Stephen. *The American Civilizing Process*. Cambridge: Polity, 2007.

Messner, Steven F., Robert D. Baller, and Matthew P. Zevenbergen. "The Legacy of Lynching and Southern Homicid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4 (August 2005): 633-55.

Monkkonen, Eric H. *Murder in New York C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_____. "Homicide: Explaining America's Exceptionalism."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1 (February 2006): 76-94.

Montesquieu. *The Spirit of the Laws*. Trans. and ed. Anne Cohler. 17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Myrdal, Gunnar. *An American Dilemma: The Negro Problem and Modern Democracy*. 1944; New York: Pantheon Books, 1962.

Nisbett, Richard E., and Dov Cohen. *Culture of Honor: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New York: HarperCollins, 1996.

North, Douglass C., John Joseph Wallis, and Barry R. Weingast. *Violence and Social Orders: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Hum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Novak, William J. *The People's Welfare: Law and Regulation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_____. "The Myth of the 'Weak' American Stat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3.3 (June 2008): 752-72.

Ohio State Universit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Historical Violence Database. https://cjrc.osu.edu/research/interdisciplinary/hvd (2018년 10월 19일 접속).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Better Life Index: Safety,"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018년 9월 15일 접속).

Peterson de Mar, David. *What Violence I Have Seen: A History of Violence*

against Wiv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_____. *Beaten Down: A History of Interpersonal Violence in the Wes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Petit, Becky, and Bruce Western. "Mass Imprisonment and the Life Course: Race and Class Inequality in US Incarce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2 (April 2004): 151-69.

Pfeifer, Michael J. *Rough Justice: Lynching and American Society, 1874-1947*.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4.

_____. *The Roots of Rough Justice: Origins of American Lynch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1.

Pleck, Elizabeth. *Domestic Tyranny: The Making of American Social Policy against Family Violence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1987;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4.

Pinker, Steven.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The Decline of Violence in History and Its Causes*. New York: Allen Lane, 2011.

Redfield, Horace V. *Homicide, North and South: Being a Comparative View of Crime against the Person in Several Parts of the United States*. 1880;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0.

Roth, Randolph. *American Hom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_____. "Yes We Can: Working Together toward a History of Homicide that is Empirically, Mathematically, and Theoretically Sound." *Crime, Histoire & Sociétés / Crime, History & Societies* 15.2 (December 2011): 131-45.

Rousseau, Jean-Jacques. *The Social Contract.* Trans. Maurice Cranston. 1762; London: Penguin Books, 1968.

Rushdy, Ashraf H. A. *American Lynch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Simmel, Georg.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trans. Kurt H. Wolff (New York: Free Press, 1955), 409-24.

Skowronek, Stephen.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1877-19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Sparrow, James T., William J. Novak, and Stephen W. Sawyer, eds. *Boundaries of the State in US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Spierenburg, Pieter. "Democracy Came Too Early: A Tentative Explanation for the Problem of American Homicid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1 (February 2006): 104-114.

_____. "American Homicide: What Does the Evidence Mean for Theories of Violence and Society?" *Crime, Histoire & Sociétés / Crime, History & Societies* 15.2 (December 2011): 123-29.

_____. "Questions that Remain: Pieter Spierenburg's Reply to Randolph Roth." *Crime, Histoire & Sociétés / Crime, History & Societies* 15.2 (December 2011): 147-50.

Stampp, Kenneth M. *The Peculia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New York: Vintage Books, 1956.

Steinberg, Allen. Review of *Murder in America* by Roger Lan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1 (February 1999): 178-79.

Stone, Lawrence. "Interpersonal Violence in English Society, 1300-1980." *Past and Present* 101 (November 1983): 22-33.

Tilly, Charles.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Revised ed. Oxford: Blackwell, 1992.

Tolnay, Stuart E., and E. M. Beck. *A Festival of Violence: An Analysis of Southern Lynchings, 1882-193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Tönnies, Ferdinand. *Community and Society*. Trans. Charles P. Loomis. New York: Harper & Row, 1963.

Tuskegee University Archives Repository. "Lynching, Whites & Negroes, 1882-1968." http://archive.tuskegee.edu/archive/handle/123456789/511 (2017년 7월 14일 접속).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Global Study on Homicide: Trends/Contexts/Data, 2013*. http://www.unodc.org/documents/gsh/pdfs/2014_GLOBAL_HOMICIDE_BOOK_web.pdf (2018년 9월 15일 접속).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Homicid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1980-2008." https://www.bjs.gov/index.cfm?ty=pbdetail&iid=4944 (2018년 10월 22일 접속).

Vandal, Gilles. *Rethinking Southern Violence: Homicides in Post-Civil War Louisiana, 1866-1884*.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0.

Wallace, Michael. "The Uses of Violence in American History." *American Scholar* 40.1 (Winter 1970-71): 81-102.

Weber, Max. "Politics as a Vocation."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 and ed.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77-128.

Wyatt-Brown, Bertram. *Southern Honor: Ethics and Behavior in the Old South*. 25th anniversary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Zimring, Franklin E. *The Great American Crime Decl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Zimring, Franklin E., and Gordon Hawkins. *Crime Is Not the Problem: Lethal Violenc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논문 투고일자: 2018. 11. 14
■ 심사 완료일자: 2018. 12. 08
■ 게재 확정일자: 2018. 12. 10

Abstract

The Debates on the Homicide Rate of the United States

Youngsoo 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reviews two recent debates about why the homicide rate has long been relatively high in the United States. The debates took place among American historians calling attention to the federal system of government, ineffective social control by communities, and other features peculiar to the United States and their European counterparts trying to elaborate "the civilizing process," which in the 1930's Norbert Elias conceptualized in order to explain the long-term decline of violence in modern Europe. The debaters often referred to the larger context, but they fail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and state and that between private violence and public authority; they took for granted the modern state with a monopoly of the legitimate use of violence. It is noteworthy, then, that the American state relied upon private power as much as upon public authority, which was evident under slavery and the system of racial segregation.

Key Words
homicide rate, private violence, public authority, citizenship, civil rights